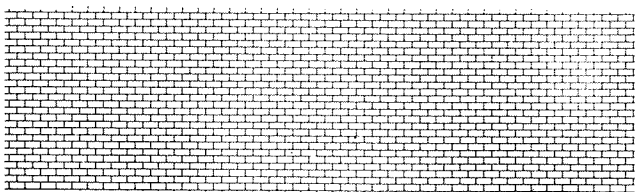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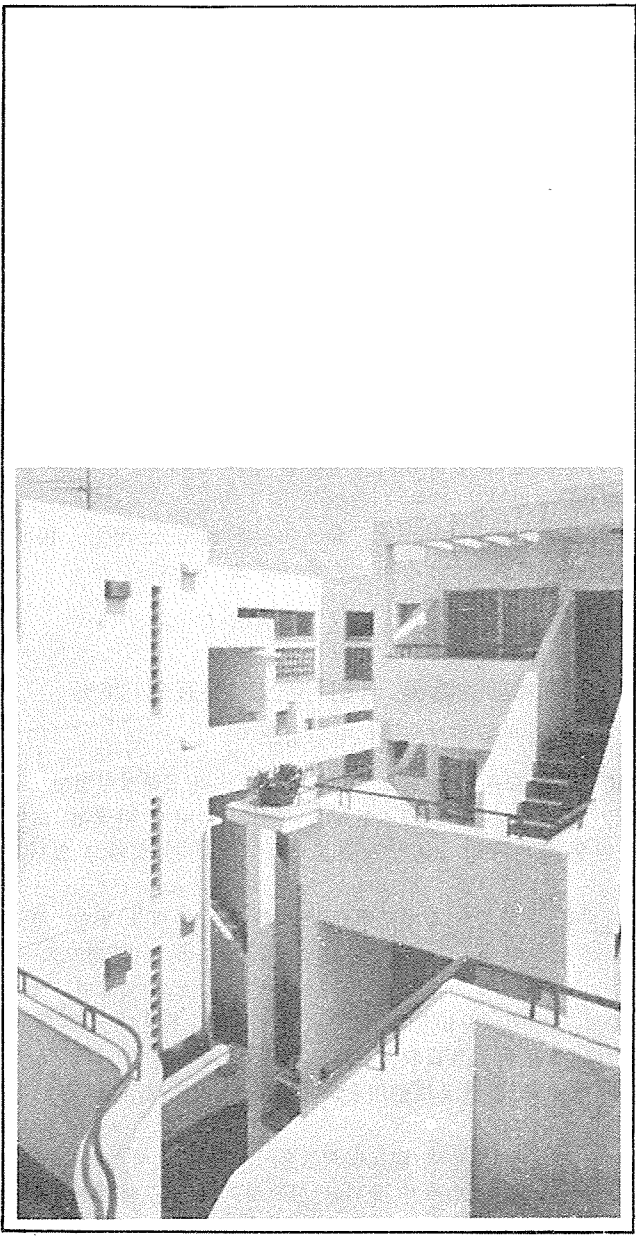


月間建築情報



1980. 10. 16~11. 15



都市公園설치·施設基準 마련——건설부

어린이公園 450평이상, 都市自然公園 30만평이상

건설부는 10월16일, 어린이公園의 면적을 최소 450평, 都市自然公園은 30만평이상인 되도록 都市公園法施行規則을 공포했다.

都市区域에 설치하는 都市公園면적은 원칙적으로 人口 1인당 1.8평이상인 되도록 했고, 어린이公園은 유치거리 250m이내, 면적은 450평이상, 近隣公園은 유치거리 1,000m이내, 면적은 용도에 따라 3,000평에서 3만평 이상으로 했다.

또한 都市自然公園과 墓地公園은 土地의 자연조건 및 역사적 의의를 살릴수 있게 30만평 이상이 되도록 하는 한편 公園은 利用者가 쉽게 다닐 수 있게 3면 이상이 道路에 접하도록 규정했다.

大企業 申告土地 4億4,291万坪

建物は 1,021万坪——재무부 집계

10월16일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大企業 및 企業人 소유 不動産申告는 마감일인 10월15일까지 1,216개 対象業체중 1,198개 업체가 신고를 완료, 98.5%의 실적을 보였다. 신고된 不動産의 규모는 土地 442,912,000평 建物 10,212,000평으로 집계되었다.

정부는 이번 신고내용을 분석, 非業務用 처분촉진등 財務構造改善作業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재무부 당국자는 신고된 企業別 不動産에 대해서는 그 비밀을 보장할것이며 非業務用 不動産処분에 있어서도 강제보다는 자진매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大企業申告土地중 個人소유는 1億1千万坪

建物は 61万9千坪——은행감독원 집계

9·27조치에 따라 10월15일자로 신고 마감된 大企業 및 企業人 소유 不動産가운데 企業主·大株主 및 直系尊屬등 개인소유 土地는 무려 1억1,163만평으로 전체 신고토지의 25.2%에 달한것으로 집계되었다.

10월17일 은행감독원에 의하면 申告된 土地 442,912,000 평중 企業所有는 전체의 74.8%인 331,273,000평, 個人 1,209명의 所有分은 111,639,000평으로 집계되었다.

建物の 경우는 전체 申告分 10,212,000평중 企業所有는 9,593,000평, 個人所有는 619,000평으로 밝혀졌다.

個人명의 부동산중 土地 29,495,000평 (신고분의 26.4%) 과 建物 6,000평은 자진처분할것으로 이번에 신고되었다.

서울시 未竣工건축물 규제—過怠料징수 條例

규모와 위배정도에 따라 8만~30만원

서울시는 10월17일, 50평 이하 건축물에 대한 「서울시 竣工未畢 既存建築物 정리에 관한 過怠料基準 및 徵收條例」를 확정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과태료는 住宅의 延面積을 기준 建蔽率위배의 경우 (容積率의 경우도 같음) 超過建蔽率이 ▲10% 미만일때는, 45평이상 주택은 20만원, 35평이상은 15만원, 25평이상은 10만원이며, ▲10~20%일때는, 25만원·20만원·15만원, ▲20% 이상은 30만원·25만원·20만원 등이다.

높이제한 위배의 경우는 超過比率로, 소정거리 위배의 경

우는 未達比率로 따져 ▲10% 미만일때는, 45평이상 5만원, 35평이상 4만원, 25평이상 3만원, ▲10~20%일때는, 15만원·12만원·9만원, ▲20%이상은 20만원·16만원·12만원의 과태료를 규정했다.

이밖에도 기타규정을 어겨 준공미필된 건축물은 연면적에 따라 10만원·9만원·8만원씩의 과태료를 내면 구제해주도록 규정했다.

서울시는 '81년 1월 4일까지 이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申告를 받아 과태료 징수절차를 거쳐 일괄 구제해주기로 했다.

釜山地下鉄 1号線, 10月20日 起工

총연장 22.5km, 2,650원 들여 85년 完工

300만 釜山市民의 숙원인 釜山地下鉄 1号線 建築工事 起工식이 10월20일 시공현장에서 거행됐다.

西区 九德運動場-忠武洞-市庁-西面로터리-楊亭로터리-연산로터리-教大앞 東萊區久瑞洞을 잇는 길이 22.5km의 釜山地下鉄 1号線은 총공사비 2,650억원을 들여, 오는 '85년까지 3 단계로 건설된다.

또 地下鉄 1号線중 15.8km는 地下로, 6.7km는 地上으로 건설하고, 구간 내에 정류장 24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大都市圏整備法을 제정하기로

国土의 균형발전·人口分散촉진케

정부는 国土의 균형있는 발전과 人口分散政策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大都市圏整備法을 제정할 방침이다. 10월2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 법은 현재 전국의 大都市圏整備와 新都市開發·人口誘發地域의 이전 등 광범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정부는 全國의 大都市圏을 개발용도와 전망 및 환경문제 등을 고려, 整備促進地域·開發誘導地域·開發規制地域·環境保全地域 등으로 나누어 国土를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할 방침이다.

서울 12개都心再開發地區 해제

철거대상·不良·無許建物 陽性化등도

서울시는 10월20일 시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일련의 조치를 했다. 차사장은 이에 대해 “시민들의 민원을 해소해주기 위해 都市計劃이란 公益과 住民의 私益이 조화되는 측면에서 이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都心再開發事業 개선...75년경부터 都心再開發事業 予定地區로 묶여온 宗廟·長沙·觀水·鍾路5街·光熙·西界·麻浦·笠井지역등 8개地域 6만여평을 해제했다. 이들 지역은 법적으로 地區指定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행정조치로만 建築行爲가 통제돼온 곳이다.

또 시내 32개 都心再開發地域중 지정된지 2년이 넘도록 事業計劃이 결정되지못한 明洞2街·新門路2街·南大門路5街·逢萊洞지역등 4개지역을 해제 조치했다.

▲再開發地域 改·補修 허용...再開發事業地區내에서 일체 통제돼오던 改·補修行爲도 사업시행때까지 改·補修할 수 있게 했다. 즉 △有許建物은 改補修는 물론 增·改策 및 用途變更도 재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허용, △無許建物은 기존건물의 면적 범위내에서 改補修는 허용하나 增·改策은 통제, △재개발지역내의 각종 無許業所중 등록대상 업종(

理美容·簡易酒店·飲食店·助産所·薬局·연탄판매소)을 양성화.

▲不良住宅...불량주택 재개발대상 총 227개 지구 약 13만호 중 적법한 私有地위에 있는 양호한 有許建物이 들어서있는 지역은 해제된다. 또 공공시설이 완비되고 건물개량은 요치않으나 國公有地에 있기때문에 地籍이 未整理상태로 돼있는 지역은, 개인에 불하, 地籍整理후 재개발사업지구에서 해제한다. 이경우 해당되는 것은 약 4~5만동.

이밖에도 양성화 및 현지개발사업지구로 장기간 竣工未畢된 건물(약 26,00동)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아 심의후 합법화한다.

▲無許可建物...고지대에 위치한 98개 철거지역내의 약 3만여동중 이미 도시계획상 公園·綠地로 결정된 지역이라도 保存價值가 없는 公園·綠地는 과감히 풀며 철거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시는 금년말까지 98개지역을 정밀 현장답사, 공원·녹지로 보존가치가 없는 지역을 가려낸다.

騒音規制基準을 새로 정하기로 — 서울시

버스종점·학교·병원등 64개소 실태조사

서울시는 현행 環境保全法에 공장소음(허용치 45 데시벨)에 대한 기준만 규정되어 있을뿐, 자동차 소음이나 教會 종소리·電波商 소음에 대한 규제규정이 없어, 서울시는 10월20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규제기준을 새로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우선 市内버스終點·學校·病院 등 64개소에 대한 騒音實態調査를 韓國標準研究所에 用役, 연말까지 조사를 끝내기로 했다. 이 결과에 따라 정한 騒音規制基準을 토대로 騒音規制地域을 새로 지정하는 한편 소음 發生源을 행정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環境保全法의 보완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조사방법은 美國環境庁의 조사방식에 따라 소음자동측정기로 대상지점 주변의 소음을 1시간 단위로 24시간 측정, 이 지점을 통과하는 교통량과 주변지형을 함께 조사해 이 수치를 컴퓨터로 처리기로 했다.

조사대상 지점은 학교(초·중·고·대)44개소, 병원 10개소, 아파트 4개지구 및 버스종점 6개소 등이다.

觀光호텔新築 극히 부진, 목표의 26%

경제불황 장기화 영향등으로

10월21일 교통부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완공예정이었던 호텔은 전국 25개에 3,397실이었으나, 10월말현재 완공된 호텔은 겨우 9개 호텔 896실로 26%밖에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觀光호텔 건설부진은 外來觀光客이 대폭 줄어, 관광시즌인 10월에 들어서도 1일평균 입국자수가 3,087명으로 작년동기 3,842명에 비해 80.4%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경제불황의 장기화, 9·10월의 콜레라 발생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觀光外貨收入実績도 목표의 3억 2천만달러의 67%에 머물고, 觀光호텔利用率도 損益分岐點인 56%를 크게 밑돌고 있다.

한편 교통부는 올해 觀光振興基金 130억원을 배정했는데 호텔建築에 충분한 보조가 못되고 있으며, 業界는 배정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해줄것을 요망하고 있다.

500萬戶 長期住宅計劃의 細部計劃 지연

부처간 財源調達등에 異見대립으로

오는 91년까지 500만호를 건설키로한 長期住宅建設에 필요한 財源調達方案과 建築景氣 부양을 둘러싸고 경제기획원·재무부·건설부 등 관계당국간에 異見이 심해 細部施行 計劃作成이 지연되고 있다.

10월2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우선 國民投資基金의 住宅資金으로의 일부 轉用문제를 둘러싸고 건설부는 그 基金의 一定率을 住宅資金으로 쓸 수 있도록 國民投資基金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재무부는 이 基金의 대부분이 이미 重化學投資에 투입돼 있을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 基金의 需要가 막대하기 때문에 住宅資金으로의 轉用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 住宅借款의 導入에 있어서도 경제기획원과 건설부는 이의 導入을 크게 확대하기 위해 商業借款의 導入도 추진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으나, 재무부는 住宅借款 導入擴大에 따른 通貨增發을 우려, 이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 美觀地區 建築規制 완화

最小垆地面積의 1/2 넘으면 심의후 허가

10월 24일 서울시는 현행 建築條例를 개정, 현재 美觀地區 내에서 最小垆地面積이 제 1종 美觀地區는 200평, 제 2·3종 지구는 190평, 제 4종 지구는 60평, 제 5종 지구는 75평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垆地의 위치 또는 특성으로 보아 추가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最小面積의 절반 이상이면 심의를 거쳐 住宅등 建築許可를 하기로 했다.

이와같은 서울시의 건축허가요건 완화조치는 빈터로 놓고 있는 땅을 규제,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인데, 기존건축물이 있는곳 보다는 앞으로 시행될 都市計劃 예정지 등에서 특히 혜택을 보게될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말했다.

最小垆地面積 미달로 竣工未畢된 경우

주변 林野·田·畚으로 보충하면 枚濟해

서울시는 10월25일 垆地面積 50평 미만의 住宅중 “垆” 이외의 地目으로 돼 있는 土地를 확보해 건축법상의 最小垆地面積을 갖출 수 있는 住宅에 대해 기존대지를 포함 최고 50평까지 形質變更 허가절차를 거치지않고 바로 垆地로 地目變更을 승인해 주기로 했다.

이 조치로 江北지역의 경우 대지면적이 27평 미만인 住宅도 地目이 畚·田·林野 등으로 되어있는 인근 土地를 확보하면 27~50평까지 대지를 갖출 수 있어 竣工檢査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江南地域의 대지면적 50평미만의 住宅도 이같은 절차로 50평까지의 垆地를 갖출 수 있게 됐다.

또 地目이 畚·田·林野 등인 토지를 사실상 垆地로 사용하고 있는 住宅은 이 조치로 垆地로 地目變更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조치는 많은 小住宅들의 最小垆地面積규정에 미달하여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하고 登記도 할 수 없어 財產權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100평 미만의 小筆地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事業地, 공공건축물의 대지에 대해서는 土地形質變更

度許可申請시에 내게 돼있는 工事予置金(평당 500원)을 면제키로 했다.

6개군 81년에 市로 昇格예정

人口 50만이상 市는 指定市로-내무부

내무부는 81년에 人口 5만 이상의 18개 군중 6개 군을 市로 승격하고 서울 九老区 溫水洞 등 6개 지역의 市·道·面 경계를 조정할 방침이다.

또 人口 50만 이상의 市에 대해서는 財政自立度등을 고려, 8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指定市로 정해 道の 지휘·감독으로부터 분리·독립시키고, 28개 市·郡의 경계와 39개 邑·面的 경계도 연차적으로 조정해나갈 방침이다.

내무부가 10월25일 마련한 81년도 市 昇格 대상 6개군은 ▲所下邑(경기始興郡), ▲金海邑(경남 金海郡), ▲井州邑(전북 井邑郡), ▲西歸浦邑(제주), ▲公州邑(인접지 일부 편입·충남), ▲羅州邑(榮山浦편입·전남) 등이다.

住公아파트 서울地域 建設을 再開

鐵山里등 후보지 물색중, 모두 分讓用만

10월26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정부는 당초 수도권 인구억제 및 택지난과 관련 금년사업을 마지막으로 서울 地域에서는 더 이상 住公아파트를 건설하지 않기로 결정했었으나, 서울 地域의 住宅不足率이 42%나 되고 公共住宅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 주택난이 더 심화될 실정이기때문에 81년도 住公 아파트를 건설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서울번두리인 京畿道始興郡 鐵山里 등 3~4 개소에 후보지를 물색중이다.

한편 정부는 서울 地域에 건설된 住公賃貸아파트가 投資財源 회수를 위해 대부분 1년후에는 分讓되는 모순을 시 정키 위해 처음부터 賃貸用은 건설하지 않고 모두 分讓用만 건설키로 했다.

500가구 이상 아파트團地에 運動場 설치케

문교부-체육활동을 통한 청소년 여가선용 방안

문교부는 10월29일 입시제도의 개혁으로 여가선용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기업에서도 사원의 복지향상 및 여가선용 여건을 조성하는 풍토가 증가됨에 따라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 신선탄지에 166m²(50평) 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고 1000 가구 이상의 단지에는 운동장을 테니스장 2면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할것을 골자로 하는 「體育活動을 통한 靑少年余暇善用方案」을 마련 발표하였다.

着工을 高의로 지연하면 建築許可 取消

악덕地主 空閑地稅 탈세행위 막기 위해

10월29일 건설부에 따르면, 일부 악덕 土地所有者들이 建築許可를 받은 토지는 空閑地稅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 建築物를 건축할 의사도 없으면서 일부러 建築許可만 받아놓고 工事着手期間을 계속 연장해가면서 脱稅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아무런 이유없이 장기간 着工 하지 않을때에는 建築許可를 취소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일단 건축허가를 받고나서 工事着手期間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무한정 연기할 수 있었다.

人口 및 住宅센서스 10/30~11/8 실시

人口21개 항목, 住宅11개 항목 조사

금년도 人口 및 住宅센서스가 10월30일부터 11월 8일까지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됐다. 이번 센서스는 우선 10월30~31일 양일간 조사원들에 의한 家口 確認·調査区 설정 등 준비작업을 끝내고, 11월 1일부터 本調査에 착수하여 ▲人口에 관한 21개 항목, ▲住宅에 관한 11개 항목을 조사하게 된다.

경제기획원 이번조사를 위해 약 6만명의 조사원을 투입, 전국을 11만개의 소지역으로 분할하고 이를 다시 11만개의 調査区로 나누어 정밀지도를 작성했으며 약 1,100만장의 調査票와 40여종의 홍보물을 배포한 바 있다.

서울주위에 15~30만 小衛星都市 건설

全대통령지시 蚕室綜合運動場 83년까지 完工

全대통령은 10월31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던 뒤, 서울시도의 人口集中현상은 전술 전략적으로 매우 불리한 것이라고 지적, 따라서 交通網을 확충근대화해서 人口 15만~30만 정도의 小衛星都市를 건설하는 문제를 장기계획을 세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학교·우수교수·중앙관공서 등을 지방 소산시켜 人口를 줄이는 문제의 검토, △都市計酬은 한번 확정하면 변경하지말것, △86년 완공예정인 서울大公園 완공목표를 늦추더라도 蚕室綜合運動場을 예정대로 83년말까지 완공할것, △市内 小規模公園을 가능한 한 많이 만들도록 할것, △유아교육의 일환으로 영세민 거주지역에 치중해서 어린이집을 지어 나가도록 할것 등을 지시했다.

서울 주변 새 衛星都市 구체적으로 검토

건설부——서울서 電鉄 1 시간 地域에

정부는 서울주변에 人口 15~30만의 衛星都市를 건설토록 하라는 全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서울 주변의 畝·面 소재를 위성도시를 발전시킬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11월 3일 建設部 관계자는 새로운 衛星都市 후보지로는 서울 都心에서 電鉄로 1 시간내(약 60km)의 거리이고 이미 생활환경이 어느정도 갖춰져있는 畝 面 소재지가 가장 유망하다고 말했다.

서울 綠地地域 地価 크게 下落

企業不動産申告·宅地法 제정등 영향

大企業소유 不動産申告, 宅地開發促進法 제정등에 영향을 받아 서울의 綠地地域의 地価가 크게 下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11월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매매호가액의 하락과 함께 賣物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江南区内 南部循還道路邊 이남 浦二洞등의 경우, 自然綠地地域은 50m도로 예정선 주변 商街 후보지가 지난 1월의 평당 18~20만원에서 12~13만원으로 떨어져 呼價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住宅후보지는 평당 12~13만원하던것이 거의 반값인 6~7만원선에서 呼價되고 있으며, 京釜高速道路邊에 가까운 곳에서는 평당 6만원 이하의 賣物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自然綠地地域의 賣物은 300~800평짜리가 대중을 이루고 있으며, 가격 하락에도 원매자가 없어 거래는 좀처럼 성립되지않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共同住宅등 建築材料

KS표시품 사용의무화 品目 확정

정부는 아파트·연립주택의 날림공사를 막기 위해 앞으로 건축재료는 한국공업규격(KS)표시품과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11월 6일 건설부에 의하면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용이 의무화된 KS건축재료는 ▲포틀랜드시멘트,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라왕베니어합판, ▲수도용 아연도 강관, ▲인입용 비닐절연 전선,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콘센트 및 플러그 등이다.

李財務...經濟治性化對策을 발표

在庫金融/金利引下/與信공급/雇傭확대등

11월 8일 李 재무부장관은, 침체상태에 빠진 경기의 부양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골자의 재정금융대책의 시행을 발표했다.

▲銀行 預貸金利 引下: 예금 21.9%→19.5%, 대출 22%→20% 등.

▲通貨·與信供給 확대: 80年 總通貨增加率 25%→27.8%, 4/4분기 国内與信공급 2,700억원 확대가능.

▲特別消費稅 時限附 引下: 家電製品· 소형自動車등 대폭 인하(6개월간)

▲健全企業 資金支援 확대: 健全企業들이 在庫증가로 경영난에 빠진 경우 기존대출 상환연기 등 지원. 신규자금지원(1,000억원 계획)

▲在庫販賣 需要者 金融: 내구소비재와 鉄筋등 原資材 資本財, 승용차등의 수요자에 대해 80年中 300~500억원을 할부 금융으로 지원.

▲보일러代替資金 지원: 노후 보일러 代替資金 2,000억원 금융 지원.

▲企業의 非業務用 不動産 매입: 土地開發公社 土地債券 年内 500억원, 81年 2,000억원으로 매입하여 財務構造 개선유도 등.

▲公共投資 확대로 雇傭확대: 내년 予算에 책정된 公共事業을 年初 앞당겨 早期執行. 조달청 未支拂債權 약 170억원 조기지불.

아파트地區 開發基本計酬 뒤, 開發에 착수토록

건설부, 住宅建設促進法施行令 개정 방침

11월10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아파트의 量的 건설에만 치중한 결과 아파트團地의 생활환경이 삭막해지고 景觀을 고려않은 건물의 배치등으로 주거환경은 획일적으로 돼가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부에 住宅建設促進法施行令을 개정하여 시장·군수는 아파트地區 指定의 告示가 있는날로부터 1년이내에 ▲아파트地區의 構成 및 土地利用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配置·建蔽率·容積率·높이·隣棟거리·道路와의 關係, ▲街路網·綠地空間·公共處理施設 등 기타 都市計酬施設에 관한 사항 ▲開發事業의 施行計酬에 관한 사항 등 아파트地區 開發基本計酬을 수립하고난 뒤에 개발에 착수토록 의무화 시키기로 했다.

建築法施行令 대폭 개정

정부는 11월12일 건축법시행령 개정령(대통령령 제10,062호)

을 공포 이날로부터 시행 하였다. 이 개정령은 1962년 제정후 13번개의 개정으로서 광범위한 조항에 걸친 대폭적 개정이다. (“改正令 全文”별항 本誌 75page. 참조)

서울시, 都市가스를 暖房용으로 보급계획

年内 示範아파트의 成果를 보아 확대

서울시는 11월 3일 증설된 시영 都市가스工場이 1日 15만 m³ (중전 5만 m³)를 생산하게 되는데다 大韓都市가스도 5만 m³를 생산하는 등 量産체제를 갖추어, 난방용으로 都市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료정책을 전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江南區瑞草洞에 신축하고 있는 아파트 96호분을 모두 都市가스난방으로 설비하여, 경제성과 안전도 및 열효율성 등을 검사한 후, 성과가 좋으면 都市가스 난방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취사용 각종연료의 경제성을 조사한 결과, 5인가족을 기준으로 1개월당, 연탄 6,900원, LPG14,025원, 石油 9,090원, 전기 11,574원 都市가스는 6,350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시는 공해가 전혀 없고 값싼 都市가스를 난방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東西高速道路 路線확정, 84년 완공예정

達成玉浦→高靈→陝川→居昌 →咸陽→南原→淳陽 →潭陽 171.5km

정부는 11월 13일 東西高速道路(大邱~光州, 171.5km)건설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총 1,995억원(81년 기준가격, 조사설계비 35억원 별도)을 투입 81년 10월 착공 84년 9월에 준공하게 될 이 고속도로는, 用地는 4車線을 마련하지만 우선 2車線만 시공한다. 이것이 완성되면 주행시간은 현재의 5시간에서 2시간30분대로 단축된다.

건설부가 圖上計劃을 마치고 확정된 바에 의하면 慶北 達成郡 玉浦面의 邱馬高速道路를 시발점으로해, 慶北高靈·慶南陝川郡治熈面·居昌·咸陽·全北 南原·淳昌등지를 통과해 全南潭陽에서 湖南高速道路 支線에 연결된다.

건설부는 東西高速道路에 9개소의 出入施設(인터체인지)과 24km의 登坂車線(화물차등이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게 하기 위한 3車線)을 마련하는 한편 3개소의 터널(총 2.1km)을 뚫고 100m이상의 긴 교량 18개(총 4.5km)를 놓는다.

出入施設 9개소는 玉浦·高靈·海印寺입구·居昌·咸陽·智異山입구(南原郡 引月面)·南原·淳昌·潭陽으로 확정했으나 인터체인지로 할것인지 간이시설로 할것인지는 아직 미정이다.

KS표시 鉄筋사용 義務化 是正을 촉구

鉄鋼工協·需給차질 中小製品 販路막혀

11월 13일 韓國鉄鋼工業協同組合에 따르면, 당국이 공동주택등의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건축자재는 KS표시품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건축법시행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非KS표시품이라도 工業振興庁 검사합격품이면 공동주택등은 물론 공공건물과 調達庁官需購買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 당국에 건의했다.

동조합은 鉄筋의 경우, 지난해 생산량 150만톤중 中小企業 제품비중이 6%, 大企業 非KS표시품이 3%를 차지하고 있는데 KS표시품 사용을 의무화하면 中小企業은 도산을 면치 못한다고 했다. 또, KS표시허가에는 平電炉施設을 갖추게 되어 있어 小型圧延施設만을 갖춘 中小企業들이 KS표시허가를 받

을 수 없는 실정이나 工業振興庁에서 수시 제품을 수거 검사하여 KS에 합격되는것은 동등하게 인정,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非KS표시품이지만 수출검사의 합격으로 KS표시품과 같이 수출도, 지난해에는 6,500(210만달러상당)의 수출실적을 올렸음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

16개 科學技術研究機關 통합조정

8개 大單位 研究所로 조정——과학기술처

정부는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능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각 部處에 분산되어있던 16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과학기술처로 이관, 8개 研究所로 綜合調整하는 「研究開發體制整備과 運營改善方案」을 11월 13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통합조정되는 연구소는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현재의 16개 정부출연 연구소).

- ▲韓國科學技術院(한국과학원·한국과학기술연구소·해양개발연구소).
- ▲韓國에너지研究所(한국원자력연구소·한국핵연료공단).
- ▲韓國動力資源研究所(한국자원개발연구소·한국종합에너지연구소).
- ▲韓國標準研究所
- ▲韓國機械研究所(한국기계금융연구소·한국선박연구소).
- ▲韓國電氣通信研究所(한국전자기술연구소·한국 전기기기시험연구소·한국통신기술연구소)
- ▲韓國化學研究所
- ▲韓國入蔘煙草研究所(고려인삼연구소·한국연초연구소).

首都圈 觀光地 30개지역개발, 246억 들어

81년에 우선 34억원 들어 5개지역 개발

11월 13일 교통부에 따르면 學生 및 勤勞靑少年의 운동시설과 야영장, 가족단위의 1日觀光用 施設이 부족한것을 해결하기 위해, 81년부터 85년까지 246억 5천만을 들여 30여개소의 수도권 관광지를 개발할 방침이다.

이계획을 우선 1차연도인 81년에 정부지원, 14억원과 觀光振興開發基金 6억 5천만원, 地方費 14억원등 모두 34억 5천만원을 들여 서울近郊 1日觀光地 5개지역을 선정, 靑少年 전용 野營場과 綠地空間(산디운동장)·靑少年會館·휴게실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共同住宅비율 10%선에 육박

4년간 증가주택 51만호중 단독주택은 40%

우리나라 주택중 聯立住宅·아파트의 비율은 75년말의 4.1%에서 지난 79년의 9.4%로 크게 늘어나 10%선에 육박하고 있다.

11월 14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75년 총주택수 4,903,000호중 연립주택 89,000호(1.8%), 아파트 113,600호(2.3%)등 공동주택의 비율은 4.1%에 달했으나, 지난 79년에는 총 주택수 5,416,000호중 공동주택이 509,000호(9.4%)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4년간 증가 주택수 501,300호중 단독주택이 40.3%, 연립주택 14.2%, 아파트가 45.4%를 점유했다. ■